

#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가속' 주요 시책 공감대 형성

### 익산시, 미세먼지 저감·도시열섬현상 완화 등 기후변화 대응

익산시는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폐철도 유휴부지에 '기후대응 도시숲'을 올해부터 2025년까지 본격 조성한다고 밝혔다.



11ha의 기후대응 도시숲을 조성한다. 우선 송학동 기후대응 도시숲(한국 농업기술진흥원 정문 앞, 1.5km)은 이미 주민설명회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실시설계를 완료하는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국가철도공단과 협약을 완료하는 대로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간으로 활용해 도시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시는 전라선 폐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인화동 기후대응 도시숲(인화행복주택~평화육교 방향, 1km) 조성 등 추가사업지로 정하고 2024년 국가예산 확보 활동에 이미 돌입했다.

규모 확보를 위해 주관 부처인 산림청과 지속적으로 교감협은 물론 특히, 공모 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 및 인근 중소기업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공모 선정 가능성을 최대한 높인다는 전략이다. 공모에 선정되면 산림청 기후대응 기금 20억원을 확보하게 되고 여기에 시비 20억을 더해 총 사업비 40억원으로 2025년 까지 사업을 완료해 장항선 복선전철화로 발생한 폐철도 유휴부지를 주민 친화적 공간으로 활용해 도시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 군산시, 2023 주민과 함께하는 읍·면·동 신년대회 마무리

군산시는 지난달 28일 내운동을 시작으로 2023 계묘년 주민과 함께하는 읍면동 신년대회가 15일 옥서면을 끝으로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2023 계묘년 주민과 함께하는 읍면동 신년대회는 지역 현안과 주요 사업에 대해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실시했으며 지난 3년간 코로나19와 지방선거로 제한적으로 실시되며 아쉬운 점이 많았던 만큼 많은 읍면동 주민들의 기대 속에서 이뤄졌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2023 계묘년 주민과 함께하는 읍면동 신년대회 기간 동안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시의 주요 시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이번 신년대회에서 주민들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격의 없는 소통으로 도로불편, 가로환경과 같은 각종 일생활화 및 밀접한 생활민원부터 RE100 그린 산단조성, 아차전지·첨단

소재 기업 유치 및 집적화와 같은 군산의 미래 신산업까지 다양한 분야에 의견을 제시했다.

시는 이번 신년대회를 통해 읍면동별 지역 현안과 주요 사업에 대하여 주민들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고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시정 운영 기초자료로 활용에 나갈 방침이다.

또 읍면동별 현장 견학의 사항 70여건에 대해서는 사업 필요성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해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 지역 소식통

### 군산시, 1인가구·여성 1인점포 안심장비 지원

군산시는 15일 여성 1인가구(점포)를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을 위해 1인가구와 여성 1인점포에 안심장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인가구에 지원되는 '1인가구 주거안전 방문지킴이 사업'은 현관 CCTV 지원사업(12가구)과 안심세트 3종(현관문 이중잠금장치, 창문 잠금장치, 휴대용 비상벨) 지원사업(40가구)으로 2가지 사업으로 구분해 추진되며, 중복지원은 되지 않는다.

여성 1인점포를 대상으로 하는 'CCTV 및 안심벨 설치사업'은 지난해 공모사업에 선정돼 여성 1인점포 77개소에 설치를 완료한 사업으로 올해 35개소를 추가 모집하는 내용이다.

신청은 15일부터 오는 3월 3일까지 가능하며 신청서류를 작성해 여성가족청소년과 또는 읍면동 방문 제출하거나 팩스(☎454-9477), 이메일, 또는 QR코드를 활용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자격, 지원내용,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산=이재춘 기자

### 군산시농기센터, 2023 로컬푸드 인증 교육 실시

군산시농업기술센터는 15일 군산지역에서 농산물을 재배하고 로컬푸드직매장에 출하를 희망하는 군산 농업인을 대상으로 로컬푸드 인증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산의 로컬푸드 직매장은 현재 4개소로 로컬푸드 직매장에 농산물을 출하하기 위해서는 매년 1회의 로컬푸드 인증 교육 이수 필수로 한다.

교육은 출하 농산물 품질관리 이해, 직매장 출하 농업인 유의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고 직접 농산물을 포장하는 실습교육 또한 포함된다.

시는 올해도 로컬푸드 인증 교육을 흡수달마다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대상을 신규 출하자와 기존 출하자로 분리해 농업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 투자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산단기업체 현장방문

### 군산시의회, OCI 군산공장 방문 상생방안 논의·투자확대 당부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지난 14일 OCI 군산공장을 방문하여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투자 확대를 당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했다.

OCI는 1959년 동양화학으로 설립되어 2008년 폴리실리콘 상업생산을 성공하였으며 2009년 OCI로 사명을 변경하여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으로 거듭났다. 현재 1990년 설립된 군산공장은 현재 임직원 58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반도체 전용 폴리실리콘 등을 생산하고 있어 앞으로도 미래산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김영일 의장은 "OCI 임직원의 애로사항 청취 및 고충과 투자 촉진에 대한 동반 협력을 하고자 화합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는 초고속 미래산업인 반도체나 배터리가 중요해진다 군산이 RE100 산단으로 최초 지정되어 있어 이에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하였다.

또한 "OCI를 군산의 형제인 항토기업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우리 군산시도 강소기업·첨단기업·미래산업으로 가자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오늘 OCI에 와보니 상당히 노력하고 있음을 느끼며 새로운 희망으로 바라볼 것"이라 했다. 그러면서 "군산시의회는 앞으로 기업들과 유기적 관계를 갖고 기

업투자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우민 부의장은 "곧 지주회사인 OCI 홀딩스와 사업회사인 OCI로 인적분할 하는데 OCI 군산 공장 사업이 축소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말레이시아 증설도 좋지만 군산 공장에서 반도체 폴리실리콘 생산량을 늘려 증대되지 않고 가동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영란 의원은 "새만금산단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시에서 반대민원을 극복하며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했으나 갑자기 중국진출을 해버려 OCI에 대한 기대만 우려반 속에 오늘 공장을 견학했는데 설명을 들으니 믿음이 간다"고 하였다.

나중대 의원은 "불황으로 2020년 태양광 폴리실리콘 생산을 중단하고 구조조정을 하는 것과 같이 OCI에서 자꾸 불안한 요소가 생기면 군산 시민인

직원들이 편히 일을 할 수 없지 않는가"라며 "지역활성화에 대해 고민해주시면 한다"고 당부했다.

송미숙 의원은 "사업이 잘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스누출사고 때 현장에서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었다"며 "화학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안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달라"고 하였고, 정 공장장도 "공정에 대한 개선을 많이 하고 있고 점검활동을 강화하고 있어 점 더 좋아질 것"이라고 했다.

김영자 의원은 "안전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시겠다고 했는데 환경문제도 잊지 말아달라" 강조하자 정 공장장은 "안전하고 환경에도 무해한 화학 공장을 운영해야 하는 건 전세계적인 화학회사들이 고민하는 부분인데 그걸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 익산시, 음식식품교육문화원 본격 운영

동북아 식품수도 익산시가 국내 음식식품문화 발전을 위해 음식식품교육문화원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익산·음식식품교육문화원은 지난해 11월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KTX익산역 앞 개관후 식품문화산업에 젊은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창업인큐베이팅 공간인 익산다이어로움 청년공유주방을 마련, 요리문화교실을 운영 식품문화 확산을 도모한다.

다이어로움 청년공유주방은 배달형 외식업 창업인큐베이팅 점포를 통해 외식업 분야의 청년창업자를 돕고, 안정적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원도심 활성화를 이끌고 있다.

1년 단위 순환 점포 형태로 운영되는 기간 동안 청년창업가 마인드교육, 위생관리교육, 원가계산 및 부가가치 창출 방법 등 다양한 교육을 받게 되며, 매장관리, 매출관리 및 고객관리 등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해 성공적으로 창업인큐베이팅을 완료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요리문화교실은 음식식품문화 확산을 도모하며 창업준비반과 취미 요리반으로 나눠 외식업 창업을 준비 중인 지역 예비창업자들에게 요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경영 컨설팅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 익산시, 복합 가족커뮤니티 시민행복도시 박차

익산시는 가족을 위한 복합 커뮤니티 공간 조성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다 우리는 가족복지(돌봄·상담), 교육, 문화 등 보편적·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공간으로 100여명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4층(총면적 3천㎡) 규모로 내년 6월에 완공할 예정이다.

시는 15일 모현동(구농악전수관 부지)에서 익산시 최초의 생활SOC 복합 시설 다우리의 기공식을 정현을 시장, 최홍우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시·의원, 지역사회 단체장 지역주민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다우리는 1층에는 다목적 가족·소통 교류공간과 다함께돌봄센터·공동육아나눔터 등이 들어선 2~3층에는 여성회관 및 가족센터의 교육실·프로그램실·상담실과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4층에는 강당과 사무실 등이 배치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